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5. 11. 1 ~ 2015. 11. 8

출장지:　프랑스

출장자:　김동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15. 11. 1 ~ 11. 8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한	

4. 출장목적

□ OECD에서 개최하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산하 작업반 회의의 우리정부 대표단 업무지원 및 자문 수행

□ OECD 및 회원국의 지역정책 담당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제 정책연구 협력 도모

II.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11/1(일)	인천	파리	▮ 출발(12:30) 및 도착(17:50) ▮ 회의 참석 준비
11/2(월)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 회의 참석 - 제18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09:30-18:00)
11/3(화)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 회의 참석 - 제29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09:30-18:00)
11/4(수)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 회의 참석 - 제34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09:30-18:00)
11/5(목)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 회의 참석 - 제34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09:30-13:00) ▮ 회복력 도시 워크숍 (14:00-18:00)
11/6(금)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 회복력 도시 워크숍 (09:30-13:00)
11/7(토)	파리	인천	▮ 회의내용 정리 및 전문작성 ▮ 출발(19:50)
11/8(일)	인천		도착 (13:50)

III. 수행사항

1. 회의 개요

- 일시: 2015. 11. 2(월) - 6(금), 09:30-18:00
- 장소: OECD 본부 회의장
- 목적: 지표개발, 사례연구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지역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식기반을 제공하고 아울러 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한 최신 정책동향을 공유

2. 주요 내용

가. 제 18 차 비도시지역작업반회의(2015.11.2)

1. 오프닝세션

○ 제 17 차 회의(2014.11.24) 및 멤피스에서의 확대간부 회의(2015.5.20) 결과보고 및 승인, 제 18 차 회의의 아젠다 승인

○ 조직 운영규칙(15a)에따라 향후 1 년간 활동할 업무조직(Bureau) 승인

- Doug O'Brien(미국) 위원장이 내년 1 월부터 Wostner(슬로베니아) 위원장으로 교체되며, 부위원장은 캐나다, EU,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대표로 구성. Wostner 차기 위원장은 비도시지역 정책의 Best Practice 를 적극 확산하겠다고 포부를 밝힘

○ 금번 회의의 임시 위원장(캐나다 대표)이 새로운 mandate 도입이후 주요 성과(제 10 차 멤피스 비도시개발 컨퍼런스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 밀라노에서 개최된 식량안보에 대한 지역적 접근 관련 이벤트, 회원국과 진행중인 도시-지역 관련 설문조사 및 리뷰 등) 소개

2. 제 10 차 비도시지역개발컨퍼런스(미국 멤피스 회의) 및 2017-18 프로그램 성과 논의

○ 위원장은 멤피스 회의(주제: '새로운 비도시지역정책을 통한 국가 번영: 비도시지역에서의 경쟁력 및 웰빙')에서의 각국 고위 관료의 적극적인 참여, 언론보도 및기타 주요 결과에 대하여 요약 보고하였음. 미국 농림부 Lisa Mensah 차관과 멕시코, 캐나다 대표는 멤피스회의의 공동 개최국으로서 회의결과로 도출된 위원장 성명서 등에 대해 보고하였음

- Lisa Mensah 차관은 멤피스 회의의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비도시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농업뿐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까지 정책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 2)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 3) '새로운 비도시지역 정책 패러다임(New Rural Policy

Paradig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OECD 회원국이 이를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권고

- 멕시코 대표는 멕시코 정부가 비도시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기존 정책기조에서 '이동성(mobility)' 강화와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으며, 캐나다 대표는 비도시지역의 중소기업(SMEs) 역할이 중요하며 도시-비도시간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언급

- EU 대표는 1) 비도시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2)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3) 자원관리가 중요하며 멤피스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 권고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

- 일본 대표는 성공적인 멤피스 회의를 축하하며 지역별 자원에 집중한 상향식 접근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

- 국토교통부 김태병과장은 멤피스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치하하고, 한국 대표단도 동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언급

○ 사무국은 OECD 가 신규 출간예정인 '새로운 비도시지역 정책 패러다임, The New Rural Policy' 보고서(주요 내용: 1) 비도시지역 개발과 신재생에너지의 연계, 2) 웰빙 관련 지역지표의 개발, 3) 비도시-도시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 이에 대한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슬로베니아 대표는 포괄적인(overarching) 보고서 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도시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변화와 같은 장기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쟁력과 혁신역량 강화와 같은 중단기적 관점이 중요함을 언급

- EU, 스위스, 캐나다 대표 등은 보고서에 구체적인 정책 권고가 포함되도록 주문

- 미국 대표는 멤피스 회의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언급하며 '비도시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

- 국토교통부 김태병과장은 지역별 제도적 역량 제고와 기존 혁신거점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Rural(비도시지역)'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국가별 사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주문. 아울러, 비도시-도시지역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한국의 주요 정책(1)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한 정책 패키지 추진과 2)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하였음

- 이에 대해 사무국은 1) 비도시지역정책에 대한 장기적 및 단기적 접근, 2) 'Rural'에 대한 전통적 정의와 신규 정의, 3) 웰빙지수의 개발, 4) 정책과의 연관성 강화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겠다고 발언

○ 차기 '비도시지역 개발 컨퍼런스'는 2017 년 터키에서 개최될 예정임

3.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사무국은 작업반회의 대표단과 함께 2015.1-10 월사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동 설문조사는 16 개 국가의 20 여명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비도시지역 개발정책 관련 현안사항, 각 국가별 정책의 장기적 트렌드 및 작업반회의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성되었음

○ ‘공공서비스 공급 관련 비도시지역의 인구변화동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페인 대표는 스페인 비도시지역이 인구 고령화, 경제 다변화,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보다 포용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을

- 이탈리아 대표는 비도시지역의 인구 추이를 바꾸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

- 프랑스 대표는 프랑스 인구의 9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나 2,400 만명이 일부라도 ‘시골(countryside)’의 요소를 가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해 1)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인적자원(교육)에 대한 투자 및 3) 도시-비도시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

- 일본 대표는 일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도쿄권에 대한 집중도는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지역 개발을 위해 커뮤니티간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비도시간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

○ ‘비도시지역의 글로벌시장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 대표는 호주 비도시지역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신시설 등인프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중국 등과의 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

- 캐나다 대표는 1960 년 캐나다의 30%가 비도시지역이었으나 현재는 19%에 불과함을 소개하고, 비도시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자원채취형 산업에서 혁신과 부가가치 기술를 토대로한 경제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 또한 국가 차원의 지역정책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주장

○ ‘도시-비도시지역간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폴란드 대표는 도시-비도시지역간 연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발언하며 도시-비도시지역이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사회 통합적인 정책이 중요함을 언급

- 핀란드 대표는 지역기반정책은 다양한 정책이 패키지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

- 농림수산식품부 정아름 서기관은 한국은 농촌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도농 연계적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 지역행복을 목표로 행정주체간 협업과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작용한 결과임에 대해 발표. 한국의 도농 연계정책을 크게 3 가지로 구분하여 1)도농간 인적자본의 교류 차원에서 귀농귀촌 정책, 도농 일자리 중개사업, 2)농촌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농교류로써 농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확충, 원격지 응급의료 협진 시스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도시민들의 농촌재능나눔 운동, 3)소비지-산지간 도농연계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정책 및 6 차산업화 정책 등을 소개

- 일부 회원국은 한국의 발표내용 등을 토대로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창출 논의

○ 미국 캔터키대학교 David Freshwater 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Atlantic Canada, Quebec, 스코틀랜드, 미국사례 비교분석)을 소개

- Freshwater 교수는 중소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의 정책을 제언. 1) 가젤형 중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 대규모 연구소 위주의 지원에서 기업 혁신에 대한 유도로 전환, 3)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 개발, 4)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 강화

- 이에 대해 뉴질랜드 대표는 혁신이 즉각적인 고용창출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Freshwater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의 혁신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변

- 스위스 대표는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클러스터를 이루지 않고 틈새시장을 공약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대해 Freshwater 교수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거나 형성하지 않는 2 가지 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답변

○ 스코틀랜드 Scottish Enterprise 의 Julian Pace 는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중인 리더쉽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스코틀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리더십에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0%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을 발견했다고 소개

- 스코틀랜드 비도시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기업의 성장을 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전체의 43%미만이었음. 이들에 대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리더를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기업에 금융, 혁신지원, ICT 등의 정책지원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 제시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김태병 과장은 상향식 절차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발굴, 정부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창조경제거점간 네트워크 등을 강조하는 한국의 지역특화성장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설파하였음. 특히 한국 정부가 지역별 특색에 맞는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소개

○ 미국 농림부 Lillian Salerno 농림부 실장은 미국이 비도시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 대한 소규모 보조금지원프로그램과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

5. 식량안보 및영양에 대한 지역적인 접근 논의

○ OECD 무역 및 농업 이사회, OECD 개발센터, 식량농업기구(UN) 등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식량안보와 식품에 관한 지역적 접근 등에 대하여 수행중인 연구를 발표함

○ FAO-OECD-UCDF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니셔티브는 세가지 단계 1) 지식정보 창출(진행중), 2) 정책혁신 사례발굴, 3) 결과홍보 등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단계와 관련하여 각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이탈리아 밀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함. TA(Territorial Approach)와 FSN(Food Security and Nutrition)에 대한 개념을 전파하며, 식량 문제를 지역적/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와 관련하여 EU 대표는 보고서의 구조, 연구방식, 일부 단락 내용이 부적절하고, 무역에 지나친 편향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나, 이탈리아 대표는 전체적인 내용에 동의한다고 발언.

– 농식품부 정아름 서기관은 식량안보와 영양이라는 개념이 국가별·공간의 수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개념이 보다 정교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는 식량안보가 식량자급률과 밀접한 개념으로 사용됨을 설명함

6. 기타

○ 사무국은 Northern Sparsely Populated Areas (NSPA: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북부지역) 지역검토보고서, 토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프로젝트, 폴란드 비도시지역리뷰 등 진행경과를 보고. 도시와 비도시간 파트너쉽, 인구감소 문제 대응, 기능적 관점에서 농촌지역의 정의 등의 내용을 주요한 이슈로 다루면서 진행 중임을 설명

나. 지역지표작업반회의(2015.11.3)

1. 오프닝세션

○ Duarte Rodrigues(포르투갈) 위원장이 제 28 차 회의(2015.4 월)결과를 소개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제 29 차 회의 아젠다를 승인

– 현재 작업반회의 사무국(Bureau)는 Duarte Rodrigues(포르투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미국 대표로 구성

○ 사무국은 제 28 차 지역지표작업반회의에 대한 후속 보고서 논의

– 첫번째 보고서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표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별 부동산 물가지표로 발전시키고자 함

– 두번째 보고서에서는 오픈데이터와 지역지표 간의 결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기업통계(Business Demography)에 관한 향후 방향 논의

2.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정 및 투자 측정 논의

○ Regions at a Glance 2016 에 포함될 '거버넌스 및 지방정부 재정(subnational government finance: SNG finance)' 부문에 관한 내용을 발표

- 사무국은 지방정부(SNG)의 지출, 투자, 세입 및 부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초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통계포켓북, OECD 데이터베이스 등도 업데이트할 예정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NG 지출은 OECD 공공지출의 40%, GDP 의 17%를 차지하며, 지방재정 관련 정부구매가 OECD 전체의 50%를 차지함. 아울러 SNG 투자는 전체 공공투자의 59%, SNG 부채는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등 SNG 재정은 OECD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EU-OECD 의 지방정부 설문조사

- 사무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EU-OECD 공동 설문조사(2015.3-7 월) 결과를 보고하고 공공투자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간 효율적 협력에 대한 거버넌스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지방재정 관련 거버넌스는 국가간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한 국가내 지역간에도 큰 차이가 있었음. OECD 지역레벨 2 에서 거버넌스 지수는 2001-2011 년 기간중 경제성장,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교육, 의료서비스, 법치 관련 시민의 인지정도 등 웰빙정도와 양(+)의 관계가 있었음

3. '지역분석 및통계' 논의

○ Stephane Pronovost 캐나다경제발전연구원 이사는 퀘벡지역의 경쟁력 및 웰빙지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소득, 경제활동비율, 시장접근성, 특허, 수출역량, 생산성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경제개발지수(Economic Development Index)와고령화비율, 서비스 접근성, 공공주택,범죄율, 투표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토대로 계산한 웰빙지수(wellbeing index)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 내용을 소개

○ 호주 인프라 및 지역개발부 소속 Cathryn Geiger 국장은 호주의 현재 인구(2,400 만명), 도시-비도시 지역별 고령화 추세, 경제활동률과 연금수령비율 등에 관한 지역간 격차, 지역별 소득수준, 산업구조 등이 포함된 지역보고서를 발표

- 스위스 대표는 지표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독일 대표는 캐나다 지표의 수요에 대하여 질의

- EU 대표는 상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부간 역할분담과 일반 국민에의 공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Geiger 국장은 인프라 및 지역개발부와 통계청이 센서스결과와 민간부문의 주택 및 보건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공동 작성하였으며, 해당 결과물은 인터렉티브한 디지털 데이터북으로 만들어져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고 답변

- 이탈리아 대표는 호주가 지역의 '낙후정도(remoteness)'를 파악하는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Geiger 국장은 호주는 낙후정도를 '인구'와 '가장 근접한 인구중심지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파악한다고 답변

○ 미국 상업부의 Bryan Borlik 과장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ISC, 미국 경제개발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클러스터 지도 제작 프로젝트에 대하여 소개. 클러스터가 특정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연관산업을 의미하며, 지역간 비교가능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대하여 발표

- 이에 대해 덴마크 대표는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Borlik 과장은 클러스터 지도를 통해 정부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어디에 투자할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답변. 아울러 독일 대표는 역내 클러스터(local cluster)와 역외

클러스터(traded cluster)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Borlik 과장은 지역간 경계를 넘어서는 클러스터도 매우 흔하다고 답변

- EU 대표는 유럽지역의 경우 European cluster observatory 가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맵핑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발언

○ 사무국은 Regions at a Glance 2016 에 포함 예정인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의 역할' 보고서 초안을 발표. 보고서는 1) 지역의 웰빙, 2) 도시지역 추세, 3)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 4) 지방재정 및투자, 5) 지역의 사회적 표용, 6) 지역의 환경적 지속성 등 6 개 장으로 구성

- 이에 대해 EU 대표는 '특정 범위의 지역이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의 일정 범위를 담당한다'식의 연구결과는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경제성장속도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의미한 통계라고 비판. 분석의 단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TL3 단위로 분석할 경우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며 Functional Urban Area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발언

4. 지방정부의 웰빙통계: 계획 및 발전 논의

○ 멕시코 대표(Norberto Roque)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10 월 13-15 일에 개최된 '통계, 지식 및 정책에 대한 글로벌 포럼' 결과에 대하여 발표

○ 멕시코와 터키 대표는 각각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웰빙지수 국가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하여 소개함. 멕시코는 각주의 웰빙 사례, 웰빙 제고 요인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웰빙의 확산과 웰빙 지표의 정책적 이용방안 논의하였으며, 터키는 웰빙 지표 작성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발 진행과정 발표

○ OECD 는 지역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기존 지역의 웰빙지표에 주관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갤럽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주관적인 웰빙 경험을 측정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 사무국은 기대수명, 사회적 연결, 삶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부패정도, 안전, 공기/물의 질 등의 지표를 택하여 주관적인 웰빙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EU 대표는 주관적 웰빙지표는 변화를 모니터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웰빙정도가 개선되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캐나다 대표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웰빙정도 측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독일 대표는 다양한 주관적 지표를 align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 아울러, 국토교통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은 주관적 요인까지 반영하여 지역의 웰빙지표를 더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지역정책의 맥락과 내용에 부합하는 요소를 취사선택해 주기를 바라며 한국도 이러한 노력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

5. 지역과 도시의 포용적 성장에 관한 워크샵

○ 지역과 도시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고 분배되며 웰빙으로 이어지는지와 관련한 분석지표와 정책이슈에 대하여 논의함

-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TL2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불균형에 관한 지표를 적용하고 예비 분석 수행

○ 도시내에서 포용적 성장을 제고하고 사회적/공간적 분리(segregation)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 논의하고, 유럽지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

○ 국가별 재정 분권과 지역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균형 재정 구조가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지 논의한 후 TL2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시

다. 지역개발정책위원회(2015.11.4-5)

1. 오프닝세션

○ 제 33 차 결과 보고 및 제 34 차 아젠다 승인

- 위원장은 신규 회원국을 환영하였으며 성공적 멤피스 회의 개최를 치하. 아울러, 멕시코회의에서는 국가간 균형이 아니라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웰빙지수의 개발이 필요함에 대해 공감하였음을 언급

- 차기 UN Habitat 3 회의에는 동 위원회가 참여하여 'National Urban Policies'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금년 12 월 파리에서 개최예정인 기후변화협상(COP21) 추이도 주의깊게 관찰할 예정

- Rolf ALTER 사무국장은 사무국이 1) 지역의 생산성 제고(Productivity), 2)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각 국가별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와, 3) 포용적 도시(Inclusive cities)에 주목하고 있음을 소개

2. Regional Outlook 2016(2016 년 지역전망 보고서) 논의

○ 사무국은 2011('Building Resilient Regions for Stronger Economies'), 2014('Regions and Cities: Where Policies and People Meet')에 이어 세번째 보고서 지역전망보고서를 준비중.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며,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제상황에 집중할 예정임

- 2016 년 지역전망 보고서(Regional Outlook 2016)는 지역 수렴(regional convergence) 동향과 정책방안 등을 중심으로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며, 2016 년 지역현황 보고서(Regions at a Glance 2016)는 지역별 웰빙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할 예정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장기 노동생산력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잠시 반등

-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의 이유는 선두(frontier)기업의 부진이 아님. 선두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에서 지속성장중이나, 후발기업(Non-frontier)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기술전파(Technological diffusion) 속도가 느려졌고, 기술, 브랜드, 마케팅, 관리, 수출입, 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중요해지면서 단순한 복제가 어려워진데 기인할 수 있음

- 국가간 격차를 줄어들고 있으나, 지역간 격차는 늘어나고 있음. 아울러, 도시지역을 소규모의 지역으로 분할할 경우 국가 전반의 생산성 하락이 발생하며, 훌륭한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성장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

○ 2017-2018 예산작업 계획(PWB) 논의

- 동 위원회 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의 질은 높으나 영향력(impact)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과 도출

- 2015-2016 예산작업 계획(PWB)의 세가지 주제는 1)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 회복력 있는 사회와 경제를 위한 도시의 역할, 3) 통합된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농촌의 연계임

- 2017-2018 예산작업 계획(PWB)의 세가지 주제는 1) 생산성 제고(Productivity), 2) 분권화 작동(How Decentralization works) 및 3) 포용력있는 도시(Inclusive Cities)로 할 계획임

- 특히, OECD 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업별 생산성 추이와 함께 '포용력있는 생산성(Inclusive Productivity)'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분권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권화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람,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포용력있는 도시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임

-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음. 2016.4 월 제 35 차 지역정책위원회시 PWB 초안을 검토한 후, 2016 년 11 월 제 36 차 지역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할 예정임

- 이에 대하여 영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등 대다수의 회원국 대표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일본 대표는 고령화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조명하기를 희망하였음

3. 물 거버넌스: 연구결과 및 향후 계획 논의

○ WGI(Water Governance Initiative,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그간 활동 성과 및 향후 전략운영계획을 보고함

- WGI 는 제 6 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2013 년 4 월에 출범하여 물 거버넌스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2015 년 4 월 RDPC 의 승인을 얻어 6 월 MCM 에서 환영을 받았음.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물 거버넌스 원칙의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표개발, Best Practice 의 발굴 및 확산, 혁신적 거버넌스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발표

○ 물 권고안 추진계획 보고

- OECD 에서는 기존의 물 관련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업데이트된 물 권고안을 준비중. 현재 물 권고안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회원국 및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2016 년에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 도시에서의 물 거버넌스 연구보고서 보고

- OECD 에서는 회원국과 Brics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시에서의 물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초안을 완성하고 보고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도시에서의 물 분야 문제점은 노후화, 인프라의 부족, 수질오염, 도시팽창에 따른 물 수요 등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물 문제 해결을 위해 3Ps(People, Places, Policies)의 관점에서 조화로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회원국의 의견 수렴

– 회원국들은 대체적으로 WGI 의 성과 및 활동방향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일부 국가(터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음. 아울러, 도시에서의 물 거버넌스 보고서에 대해 오스트리아, 터키 등에서 검토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검토후 의견 제시 예정임을 피력함

4. 이민자 통합에 관한 다층적 거버넌스 이슈 논의

○ 다계층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논의와 대표단의 경험을 공유하였음

– 특히, 최근 발생되고 있는 유럽지역의 난민유입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정책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주민의 유형(경제적 이민자, 정치적 망명자, 내전으로 인한 난민 등)과 특성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과 국제, 국가, 지역, 도시 등 다계층의 정부 레벨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

5.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대한 지역정책

○ 사무국은 OECD Territorial Review(일본)를 보고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생산성은 2000 년대 중반이후 개선되었으나 노동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며,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일본은 매우 빠른 생산성 증가 달성과 함께 여성 및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며 특히 낮은 인구밀도는 혼잡비용과 환경비용의 감소, 탄력적인 토지이용, 낮은 주거비용 등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결과는 수명의 증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부가 관건임

– 공간계획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중 하나이며, 일본의 국가공간전략(National Spatial Strategy)은 일본의 미래를 '컴팩트하고 연계(network)'된 공간으로 예측하고 있음.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일본 국토의 5.2%, 인구의 46%, GDP 의 전반을 차지)는 현재 혁신 활동의 중심지이며, 이들 도시의 경쟁력은 일본 경제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 향후 일본은 초고속열차를 통해 이들 3 개 도시를 단일 메가도시권으로 연결할 예정임

– 상기 3 개 도시 외부에 있는 중소도시는 집적(agglomeration)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수평적 조정(coordination)과 인프라간 연계가 필요함. 특히 도시–비도시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성장전략과 비도시지역 재생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은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ies) 프로젝트의 진행경과 보고 및 의견수렴도 진행하였으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에 관한 서베이 협조를 요청

6.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헤이그 대도시권(MRDH)에 관한 지역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발표

○ 사무국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헤이그 권역에 대한 Territorial Review 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1 인당 GDP 에 대한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집적화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로테르담과 헤이그와 같은 도시권은 비슷한 규모와 소득수준의 OECD 도시들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도시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네덜란드정부는 최근 일련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하나는 2015.1 월 시행된 stadsregio(1950 년에 설정된 8 개의 대도시권)의 폐지임. 이를 대체하는 MRDH 는 상향식 이니셔티브로서 광역적 권역과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권역 사이의 간극을 채워줌

- MRDH 지역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2 백 30 만)중 하나로서 네덜란드 GDP 의 16%를 차지. MRDH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항만, 정치적 자본, 국제 사법 클러스터, 고급인력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년 경제위기 이후 높은 실업률로부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음

- MRDH 는 다양한 기능적 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테르담, 헤이그, 기타 주변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임. MRDH 권역의 로테르담, 헤이그, 인근 도시들의 경제를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역개발 (내부 경제통합의 강화 및 MRDH 의 경쟁력 강화)과 운송분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중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 전략에서 국토 균형발전전략으로 지역정책 목표를 전환하여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화발전 전략과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

- EU 대표는 MRDH 지역의 연계통합에 관한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 영국 대표는 집중과 분산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며 런던의 경우 다양한 분산적 집중이 통합된 경우라고 할수 있다고 발언

7.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지역 발전: 거버넌스의 역할 논의

○ 정부간 효과적 공공투자를 위한 OECD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보고함

- OECD 와 EU Committee of the Regions(CoR)는 공동으로 유럽지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Ï였´음½. 그 결과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많은 지방정부들이 정부간 업무조정과 투자결과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

- 이에 대해 독일은 독일도 유사한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발언하였으며, 덴마크는 조사결과가 너무 단순해서 실질적 시사점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 일본은 부처간, 정부간 조정이 어렵다는 의미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발언

○ 멕시코의 Valle de Mexico 의 경험에 관한 지역검토보고서(Territorial Review) 주요 내용 발표

– Valle de Mexico 지역은 OECD 회원국중 세 번째로 큰 대도시권(룩셈부르크의 3 배 크기)이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나 회원국의 다른 도시권과 비교할 때 생산성은 낮은 편임 Ó 을» 발견. 이에 대해 침체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며 주택 및 도시발전을 위해서 “스마트 성장”전략의 Ç 채택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도출

– 이에 대해 스페인은 도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멈추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와 도시의 경계는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가는데 해당 기관간 협력이 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아울러, 영국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반대 의견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런던 히드로 공항의 경우 5 터미널 확장 건설에 15 년이 소요)

8. 국제적 관계형성 및 홍보활동

○ 지 ö 역ª개³발 ß 정¤책¥위§원 ø 회¸와 Í 비회원국의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사무국은 현재 모로코, 페루, 튀니지 등 비회원국과 지역검토보고서 진행 중임을 소개

– 모로코 대표는 모로코는 도시성장, 농촌지역 침체, 지역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지역정책 현안을 가지고 있으며, OECD RDPC 와 교류를 통해 자국의 지역정책 발전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고 발언

– 페루 대표는 페루도 OECD 회원국의 경험으로부터 지역정책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페루도 지역 발전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거버넌스 구조 등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음을 언급

– 튀지니 대표는 2011 년 혁명과 2014 년 새로운 헌법의 제정 후,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이며 지역간 교류, 협력, 재정, 매력도 제고, 분권화 등 추진 중임을 소개

– 루마니아 대표는 루마니아도 OECD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발언

– 슬로바키아 대표는 2015 년 12 월 3-4 일 슬로바키아에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을 홍보

9. 콜롬비아 OECD 회원국 가입 관련 비공개 세션

○ 사무국은 콜롬비아 현황에 대한 검토내용을» 발표하였으며 ç, 콜롬비아의 1) 도시-비도시간 격차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정책, 2) 공공투자와 지역개발을 위한 여러 단계의 거버넌스, 3)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제도적 역량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